

동서대학교 제1회 동서교류제 개최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겠습니다”



▶동서대 종합운동장 중고장터에서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교재를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

동서대 신입생, 재학생들 모두가 새 학기 생활을 밝고 함께 꽃피웠다. 지난 달 14일 동서대학교 '모두가' 총학생회가 주최한 '동서 교류제(캔디 블러썸)'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동서 교류제는 신입생을 맞아 신입생과 재학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애교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동서대 총학생회는 “학우들과의 소통, 교류를 위해 기획한 행사인 만큼 흥미롭고 알차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3개의 학생자치기구, 16개의 학부, 29개의 동아리가 본교 종합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했다. 또한 재학생·신입생들이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고장터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제 1회 동서 교류제는 동서대학교 재학생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중고장터 ▲동아리별 공연 ▲동아리 홍보 ▲학부별 콘텐츠 ▲사진전에 받았던 질문들

로 진행된 자치기구 토크쇼 ▲스탬프 투어(상품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동서 교류전에서는 선배들이 사용한 전공·교양서적을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고장터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총 전공·교양서적 600여권이 거래 되면서 많은 후배들의 교재 구매 부담을 덜어줬다.

이번 행사 동안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들도 재학생과 자치기구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열정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학부대표들이 귀여운 율동과 함께 춤을 추는 댄스 타임을 통해 학생들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스탬프 투어를 통해 응모 자격을 갖춰 상품에 응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 방송을 SNS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했다. 방송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추첨했으며 3등은 10만원, 2등은 20만원, 1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총학생회가 준비했던 응모지 2000장 중 용지가 100장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송현민 [제 26대 모두가 총학생부회장] 총학생회의 목표는 “학교에는 D-map, 학생자치기구 예컨 ‘동서 교류제’가 있다.”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학교는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 된 D-map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사, 교육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학교에 조금 더 적응하기 쉽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에 반해 ‘학생자치기구’에서는 ‘예비대학’과 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례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그랜다할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과 15개의 학부, 29개의 동아리가 힘을 합쳐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해왔습니다.

먼저 자치기구 별 다양한 이벤트와, 학부별 특성을 살린 게임, 동아리별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 문화에 접근하기 쉽도록 행사를 전반적으로 구성했으며, 각 학부 별 중고 전공 및 교양서적 을

판매 하여 후배들이 신학기 부담스러운 책값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 학기 초에 학우 분들이 한 번 더 웃고, 재밌고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학우 분들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속의 공간이 모교인 ‘동서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올바른 ‘학생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겠습니다.”

동서 교류제에 참여한 한 학생은 “행사 안에서 진행된 멋진 춤과 노래들이 눈과 귀를 호강 시켜줬다. 특히 중고장터와 이벤트는 정말 좋았다. 내년에도 같은 행사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선정 공학교육혁신센터 4년간 8억원 지원 받아



▶동서대학교 스튜던트 플라자 앞 로고 조형물.

동서대학교가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다.

동서대가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 연차평가에서 ‘2018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수행실적 및 다음 해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사업의 재선정 여부를 판단, 동서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학교육혁신 센터는 4년간 8억 원을 지원받는다.

평가 기준은 3년간 사업 수행 결과(사업 목표의 달성도, 성과관리의 우수성, 사업 집행의 적절성) 및 다음 해 수행계획(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전략의 합리성)으로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도와 성과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 평가한다.

앞으로 4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매년 평가를 받아 1년 단위로 사업이 연속되거나 중단된다. 4년간 8억 원가량의 사업비

가 소요되며, 사업의 성공적 진행은 다음 사업의 선정에 결정적 포인트가 된다.

동서대 공학교육혁신 센터 김태용 센터장(컴퓨터공학부 교수)은 “향후 미래 신산업에 대비한 공학교육역량 강화, 메이커 스페이스(캡스톤디자인 수행 공간)를 백분 활용한 이론과 실습의 최적 병합 결과 도출,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실물 경제 주무부처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또 한 번 동서대학교가 공학 계열뿐만이 아닌 동서대학교 전체의 우수한 교육역량과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사 령

•수습기자-유미림(방송영상전공·1)
강지영(패션디자인학과·2)

동서대.(주)헤인식품 클래스셀링 협약

전문 인력 양성교육 위한 행보 내딛어



사진출처 ▶네네치킨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부터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11층 글로벌 룸에서 동서대와 치킨 창업 프랜차이즈 네네치킨과의 클래스 셀링 협약식이 진행됐다.

네네치킨과 동서대학교 양측 간 클래스 셀링 협약식은 이날 행사에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대수 단장과 ㈜헤인식품(네네치킨) 현광식 대표가 자리를 빛냈으며, 동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오중서 학부장, 김현 전공 책임교수 등 각 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시선을 끌었다.

여러 직종의 종류를 분분하고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색적인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상에 맞춰 최근 치킨 창업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동서대학교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네네치킨은 동서대학교와 클래스 셀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교육에 힘쓰기 위한 행보를 점진적으로 내딛겠다고 전했다.

동서대와 네네치킨은 협약식에서 2018학년도 1학기에 클래스 셀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클래스 셀링의 내용은 ‘네네치킨 IMC 전략’이라는 교과목명으로 구성되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 PR 전공 학생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광고 PR 전공 학생들은 네네치킨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네네치킨이 지금까지 펼쳐 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 분석과 파악을 실시한 후, 자료 조사를 토대로 아이디어 구제화 및 정교화를 거쳐 최종 시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네네치킨 측 관계자는 “동서대학교와 체결한 클래스 셀링 협약은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도다. 자사는 동서대학교와 함께 상호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업계에 이끌어 나갈 미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클래스 셀링은 산·학 협력 선동 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대학에서 산·학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해 기업 연구 개발 및 학생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 프로젝트 과제를 기업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 장점이 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어려운 이웃 위해 팔 걷어 붙여



▶1200여명의 학생들이 동서대 소향아트홀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서대학교가 지난 달 12일 뉴밀레니엄관 소향아트홀에서 ‘2018년도 1학기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발대식에 참가한 동서대 자원봉사단은 공식 출범에 앞서 파이팅을 외쳤다.

학생들은 발대식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실천하고 양보와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선서했다.

동서대 자원봉사단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동서대는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학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단에 지원한 재학생들은 총 1232명으로, 1학기 동안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 자원봉사포털센터,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방문해 2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1학기 활동(총 22시간 이상)을 마치면

교양과목 1학점을 인정받는다.

조중성 부총장은 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캠퍼스 곳곳에 활기가 충만한 지금 자원봉사단이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 해결능력, 사회적 기술능력, 인지 및 공감능력, 창의력 등 4가지 요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발표하였습니다.”라며 “여러분의 봉사활동은 ‘사회적 기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료들 간에 연대를 통해 지성인들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체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격려했다.

또한 “각종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경험에 더해지면 여러분은 진정한 인재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부총장은 “귀중한 시간을 쪼개 사회적 봉사활동 대열에 참여한 여러분은 동서대학의 미래이자 든든한 자랑입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참된 성취감을 맛보고 봉사의 참다운 정신을 발전시키면서 대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동서대, 2018 캠퍼스 아시아 개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대학 공동 운영의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 열려



▶동서대 2018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

지난 2018년 3월 1일, 동서대학교 뉴질랜드니엄과 중형시사실에서 CAMPUS Asia 이동 캠퍼스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서대 동아시아학과 18학번 신입생 20명과 학부모 25명이 참석했다. 또 2018학년도 이동 캠퍼스 초청 학생들인 중국의 광둥외국어무대 학생 20명, 일본의 리츠메이칸대 학생 19명도 개강식에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8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국의 동서대와 일본의 리츠메이칸대, 중국의 광둥외국어무대 등 한·중·일 3개국 대학이 아시아 인문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특화 프로그램이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하는 3개국 대학의 학생들은 한·중·일 3개국 캠퍼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와 3개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서로 공유한다.

이홍규 교수와 오자사 교수, 제점숙 교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과 비교과 과정, 학사 일정,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 등에 대하여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동아시아학과 제점숙 책임교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유해야 동아시아 인문학 인재 육성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며 덧붙여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휴일인 3월1일에 개강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뒤이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선배들인 한·중·일 3개국 학생들

이 개강식에 참석해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그 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동서대 3학년 김지후 학생은 "오늘이 자리에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 후배들, 그리고 1년 과정을 공부하고 일본 또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2학년 후배들, 마지막 유학 생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동기를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저 또한 아직 배울 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 또 함께 걷고 있는 동기로서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하려고 한다."라며 후배들에게 말을 전했다. 이어 1학년 후배들에게 "고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새내기가 된 1학년 후배님들, 먹고 마시고 노는 대학 생활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동아시아학과 의 1학년은 힘들고 지치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저 또한 남들은 다 노는 1학년 때 체육대회도, 축제도 없이 시험에 과제가 많이 지치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다."라고 전하며 "하지만 이미 유학을 갔다 온 3학년 선배들은 모두 공감하듯이 1학년 때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것이 일본, 중국에서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 딱 1년만 참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 2, 3학년 선배들 모두 그 시기를 겪어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으니가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2학년 후배들에게 "이제 처음 일본,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2학년 후배님들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이제 곧 중국, 일본으로 가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놀고 많은 곳을 다녀 보고, 많이 느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1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더 많이 보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다. 지금 돌이켜보니 유학생활 중에 느꼈던 많은 것들이 소중한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냈다. 이어 "후회하지 말고, 많이 놀고 많은 것을 느끼는 유학생활 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생활로는 마지막 1년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동기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하느라 수고했고 부족한 동기 챙겨줘서 너무 고맙웠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항상 뒤에서 고만하시고 더 나은 유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다. 더 많은 것을 배워오고 느껴서 한 층 더 성장하는 동아시아의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말을 맺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 3학년 다나카 마이 학생은 "우리는 2학년 때 한국과 중국에 갔었고 이번에 한국 유학이 마지막이다. 작년 한국 유학은 처음 해보는 유학이라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룸메이트와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서 이야기하면서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때, 사진을 사용하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마지막 유학이라서 전 문지식이나 전문 언어, 어려운 한국어를 배우고 졸업논문이나 취직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한국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큰 목표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중국 친구들과 유학하는 것이 마지막이라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학생 모두가 웃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중국 광둥외국어무대 3학년 파진쉬엔 학생은 "이번에 한국에 온 지 4번째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나 K-POP 등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캠퍼스 아시아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으나, 반년 정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진실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많이 신기했다."라며 생각을 전했다. 이어 "반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인은 외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옛날에 있었던 신분제도와 얽여지고 탈라진 지금의 모습 등과 같이 점점 구체적으로 한국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캠퍼스 아시아의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과 중국 3개 국가의 밀접한 협력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며 말했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동서대, '궁' 뮤지컬 제작

(주)재담미디어와 협약을 체결하다



▶협약식 자리에 참석한 장제국 총장(좌), 황남용 대표이사(우).

지난 2월 28일,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과 (주)재담미디어 황남용 대표이사 박소희 작가의 대표 만화 '궁'의 뮤지컬 제작에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궁은 한국, 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만화, 드라마로 제작된 작품이다. 동서대 LINC+사업단의 매가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제작되는 뮤지컬은 워크샵 공연이 완성된 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상용적인 공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를 활용하여 캐릭터, 디자인 상품, 디지털 미디어 등의 다양한 OSMU(One Source Multi Use)사업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서대 장제국 총장, (주)재담미디어 황남용 대표이사, '궁' 원작자인 박소희 작가 등의 관계자들이 함

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 기관은 산학협력 교육, 산학협력 프로젝트, 각종 수익적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재담미디어의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들과 동서대만의 특성화 분야들을 접목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이번 협약은 동서대가 추구하는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 구축에 힘을 보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만화 분야의 인재 양성과 독창적인 뮤지컬 제작을 시작으로 일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학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제작되는 뮤지컬 '궁'은 워크샵 공연을 통해 빠르면 2019년 초에 대중에게 선보이게 된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광고PR전공, 클래스셀링 수업

갈수록 진화,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켜



▶절취선이 있는 일본의 친환경 페트병 음료.

대학교 특성화·국제화를 선도하는 동서대가 LINC+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 '클래스셀링(Class Selling)' 수업이 갈수록 진화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클래스셀링'이란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지도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에서 구매하는 '주문식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동서대는 지난 2014년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통해 5년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서대 LINC+사업 클래스셀링 수업을 듣는 광고PR전공 학생들이 한·일 제품 비교를 통해 부산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후쿠오카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페트병 음료 친환경 소비 실태와 개선점 등을 제안했다.

지난 1일, 한국과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 실태, 도시철도·관광중심지 안내지도 비교, 편의점 상품 구성·편의시설 차이, 한국 청년 일본취업 성공 기 등을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현장을 취재한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상해선 학생은 "일본의 경우 친환경 소비를 위해 대부분의 음료 페트병 라벨링을 수축 필름으로 하고 절취선을 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 절취선이 없는 것은 물론 아직도 인체에 해로운 본드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지원 학생은 "일본 편의점에서는 주자장과 내부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달랐으며, 간단한 행정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반

면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내부에서 음식을 대위 취사가 가능한 점이 비교됐다."라고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앞세워 갈수록 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차이를 꼼꼼히 취재,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품 구매 면에서는 늘어나는 혼란 즉독을 위해 자체 개발 도시락과 빵 종류가 일본 편의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 한국에서도 발달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예시로 들었다. 김은아 학생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최영훈 에어부산 지점장 인터뷰를 통해 저비용항공사 등장 이후 선박보다 편리한 항공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와 당일 여행도 가능한 부산과 후쿠오카 간의 최신 트렌드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동서대 학생들은 일본 후쿠오카 현지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후쿠오카 대중교통 안내표지판 차이(김경근)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비교(최동욱) ▲식생활 비교와 음식점 메뉴 디스플레이 차이 ▲늘어나는 한국 청년 일본취업 실태(강운원) ▲부산·후쿠오카 중심지 관광안내지도 비교 등 수업을 통해 두 나라간 차이를 흥미롭게 취재했다. 김중필 지도교수는 "동서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파이낸셜 뉴스와 손잡고 진행 중인 클래스셀링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 수업을 실시, 부산과 후쿠오카의 실질적 비교를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선도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클래스셀링 등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보건의료계열 국가고시 합격률 전국 최고

간호학과·방사선학과·작업치료학과 합격률 100%



▶보건의료계열 학부장, 윤태형.

2018년 2월에 동서대학교를 졸업한 보건 의료계열 학생들이 국가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선보이고 있다. △간호학과 66명 △방사선학과 12명 △작업치료학과 38명은 올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임상병리학과 87.9% △보건행정학과 57.1% △치위생학과 95.7%로 전국의 평균 국가고시 합격률(임상병리학과 83.8%, 보건행정학과 26.5%, 치위생학과 83.2%)보다 더 높은 수치의 평균 합격률을 선보였다. 이처럼 보건의료계열의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은 취업과 연결되는 지름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또한 보건의료계열의 교육 수준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동서대 보건의료계열은 재학생이 약 1,000여 명에 이르며,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의 규모를 유지하는 대학은 보기 드물다.

윤태형 학부장은 "교육의 질과 규모 면에서 동서대 보건의료계열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학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각종 지표도 최상위권이다. 젊

고 유능한 교수들이 밤낮 할 것 없이 교육과 연구 및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어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 학부장은 "보건의료계열은 대학원을 통해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대학과의 2+2 교류를 비롯하여 국제화에도 앞서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며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의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과 규모를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열의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임상병리학과에선 2017년 인도네시아 UNIMUS Short Course Program 실시하고 일본 의학 검사 학회 학생포럼 영어로 주제 발표를 했다. ▲보건행정학과에선 보건 교육사, 병원 행정사 등 관련 자격증을 전국 평균을 뛰어넘어 취득했으며 보건의료산업학회에서 학생들이 쓴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제화사업인 KOICA를 유지했다. ▲간호학과에선 간호교육평가를 인증 받고, BLS(심폐소생술 기본과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KALS(심폐소생술 전문가과정)을 인증 받았다. ▲방사선학과에선 최근 5년간 국시 합격률 부·울·경 최상위(평균 92%)를 달성했으며, 융합방사선학과 대학원 과정을 열었다. 또한 다양한 국제협력 및 학생 교육/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치위생학과에선 최근 4년 연속 100% 국시 합격, 학생들에게 본인에 맞는 단계별 실무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BLS provider, CS Leaders(관리사), 건강 보험정가사, 보건 교육사, 치과코디네이터 매니저, 국가공인 영어자격증(TEPS, TOEFL, OPIc),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작업치료학과에선 2015~2018년 4년 연속 졸업생 100% 합격(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일).

2017년 국민 건강 보험공단 6급(작업치료사, 요양 직) 공채 합격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동서대 보건의료계열의 정교하게 구성된 교육 커리큘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들이다. 나아가 더욱더 발전될 동서대학교 교육 커리큘럼을 기대해본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자격증을 알아보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최근 일본에서 청년 난이 심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활황세를 보이는 일본 고용시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일본으로의 유학이나 취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깨는 것이 우선적이다.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어학성적은 다양한 자격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본어 자격증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시험마다 특징이 있고 어학 성적이 사용되는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험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본 유학 혹은 취직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는 당신을 위해 일본어 자격증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JLPT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본어능력시험이다. 일본의 국내외에서 두루 실시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평가받으며, JLPT는 취득 이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어학시험과는 달리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과 유학 등 가장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어학자격으로써 시험은 7월 12월 1년에 2회 실시된다.

시험은 N1부터 N5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수험자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상위 레벨인 N1과 N2는 언어지식(문자·어휘), 언어지식(문법)·독해, 청해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0점 만점에 등급별로 80~100점 정도의 합격점수가 설정되어 있다. 과락이 있어서 과목별 최저점수를 넘지 못하면 총점이 합격선을 넘어도 불합격하게 된다. N1은 일본어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학에서 학습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며, N2 일반적인 회화와 읽고 쓰기가 가능한 정도이다. N3와 N4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난도가 약간 있는, 혹은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이다. N5는 기본적인 한자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이루어진 기본 표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JPT

JPT(Japanese Proficiency Test)는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낮거나 학문적, 지역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JPT는 '일본어계의 토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토익과 유사한 점이 많다. 크게 청해와 독해로 나뉘는 점과 990점이 만점이라는 것, 각 분야별로 설정된 문제 유형 등이 토익과 비슷하다. JPT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가가 관건인 시험으로 JLPT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휘력과 언어구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기업 중에는 JPT 성적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점수대별로 6 종류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880점 이상이 A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본어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된다. B등급은 740점 이상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이며 C등급은 제한된 범위의, D등급은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이다. B등급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가 가능하며 의사소통은 초보 수준이다. 마지막 등급인 F등급은 220점 미만이며 의사소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JLPT와는 다르게 매월 1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의 유효기간 또한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SJPT

일본어 자격증 시험으로 JPT와 마찬가지로 YBM에서 주관하며 말하기 위주의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이다. 응시자는 헤드셋을 끼고 문제를 들은 후 마이크를 통해 대답을 녹취하고 이를 평가받는다.

BJT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로, 합격과 불합격 없이 최대 8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일본어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지식백과
문단은 기자
yoondasol73@gmail.com

방송 돋보기 - <전지적 참견 시점>-MBC



■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매니저들의 거침없는 제보로 공개되는 스타들의 리얼 일상! 그리고 시작되는 다양한 '참견 고수'들의 시시콜콜한 참견!이라는 소개로 시작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5분에 채널 MBC에서 방영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은 2018년 3월 3일에 첫 방영을 시작하였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이영자, 전현무, 송은이, 김생민, 유병재, 양세형이 출연을 한다. 모든 사람의 삶이 전부 다르듯, 이들 또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전지적이란 사람과 현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각 출연진의 전지적 시점을 소개하자면, 이영자는 전지적 '지적' 시점, 전현무는 전지적 '탐상' 시점 송은이는 '감독' 시점, 김생민은 전지적 '질문' 시점, 유병재는 전지적 '작가' 시점, 양세형은 전지적 '감색' 시점을 지니고 있다. 필자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청했을 때에는 전지적이라는 신선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화제성을 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이영자는 매니저와 처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듯하면서도 점점 찰떡궁합을 보이게 된다. 서로 다른 줄 알았던 이영자와 매니저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남부럽지 않은 식탁으로 뽕뽕 통치고, 이영자가 떡을 더 달라는 매니저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한 출연자만이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출연자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영자에 이어 유병재가 10년 우

정의 매니저와 환상의 호흡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모두 안겼다. 평소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낮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유병재와 그런 유병재를 대신해 열심히 팬 서비스를 하는 연예인 보다 더 연예인 같은 매니저의 모습이 그려져 웃음을 자아냈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켰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처럼 느껴진다.

김생민과 그의 새로운 매니저도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김생민에게 처음으로 매니저가 생겼다. 매니저가 익숙하지 않은 김생민의 모습, 사회 초년생인 매니저의 잦은 실수를 보며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잘 알려주는 김생민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훈훈한 장면이 생겨났다.

첫 방영 이후 지금까지도 크게 뜨고 있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왜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극과 극이 만나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어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요소를 줄 뿐만 아니라 이영자가 소개하는 맛집, 전지적·심리적 분석에 뛰어난 전문가와 함께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파악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문서 수습기자
eunseo9830@gmail.com

실전 창업 체험 프로젝트 동서대 학생들 꿈의 장학금에 도전하다



동서대 창업지원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실전 창업체험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대비 Start-Up Practice'를 진행했다.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 및 학생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대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서대에서 주관하고 창업지원단 및 LINC 사업단에서 주최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창의인재육성, 학생처 등 학생 취업·창업에 담당하는 사업단과 본부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1억 8천만 원 꿈의 장학금에 도전하라'는 파격적인 문구로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집대상에는 학점, 학년에 상관없는 동서대학교 재학생 모두가 포함됐다. 비교적 제한이 적은 모집대상은 창업을 통해 자신

의 전문성 및 커리어를 개척하는 길을 학생들에게 열어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학 당국의 의도를 볼 수 있었다.

2015년(장학금 1억4천만 원)부터 시작된 창업체험 프로젝트는 2016년에는 1억5천만 원, 2017년에는 1억8천만 원의 교비 장학금을 지원하며 매년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서대 학생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순수 교비를 투입하여 시행되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실전 창업 체험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찾아가는 학부 설명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로 39개 팀에 150명을 선발하였다. 지원 분야는 수준별, 맞춤형 창업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2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다. 트랙1은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디어 도출, 트랙2는 비즈니스모델(사업화) 확립으로 구성하였다. Track 1과 Track 2는 공동투자로 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가상투자로 진행(TTM Edu)되었다. 12월 19일 오프 행사에서는 선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과 동문 CEO 스타트업 특강(동문 CEO의 스타트업 성공사례)을 진행했다. 뒤이어 클라우드 펀딩 창업캠프, 실전 클라우드 펀딩/모의투자, 자율창업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후속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아이템 분야별 전문 멘토를 매칭하여 팀별 1대1 후속 멘토링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된 창업캠프에서는 아이템 구체화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가상 클라우드펀딩 대회를 열었다. 이어 1월 5일부터 19일까지는 자율창업 활동을 통하여 창업기업 현장방문, 전시회 및 프리마켓 참가, 창업교육수강, 제품의 시장반응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업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1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된 2차 가상 클라우드 펀딩은 학생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시제품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 가상투자를 진행하며, 창업 마인드 고취 및 저변확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프로세스의 체험, 그리고 고객과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당 아이템을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는 창업 관심 학생 및 창업 동아리, 우수 졸업작품 및 공모전 수상 아이템, 학부 추천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학생들 자신의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별도 멘토링도 제공했다. 주요 멘토로서 '코비즈 경영컨설팅'의 김태환 대표, 'DL 네트웍스'의 김태희 대표, '헬니스팜'의 김형철 대표, '(주)부산인신문'의 이명환 대표, '애플즈'의 이경용 대표가 창업 제안서 작성 및 창업 투자전략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구체화된 각 팀(39명)의 아이디어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온라인

클라우드펀딩대회를 열어 실전 투자 테스트를 마쳤다.

조종석 부총장은 축하사에서 "오늘 동서대 실전 창업체험프로젝트를 수료하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 3개월간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칭찬드리고 싶으며, 그 꿈과 비전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결실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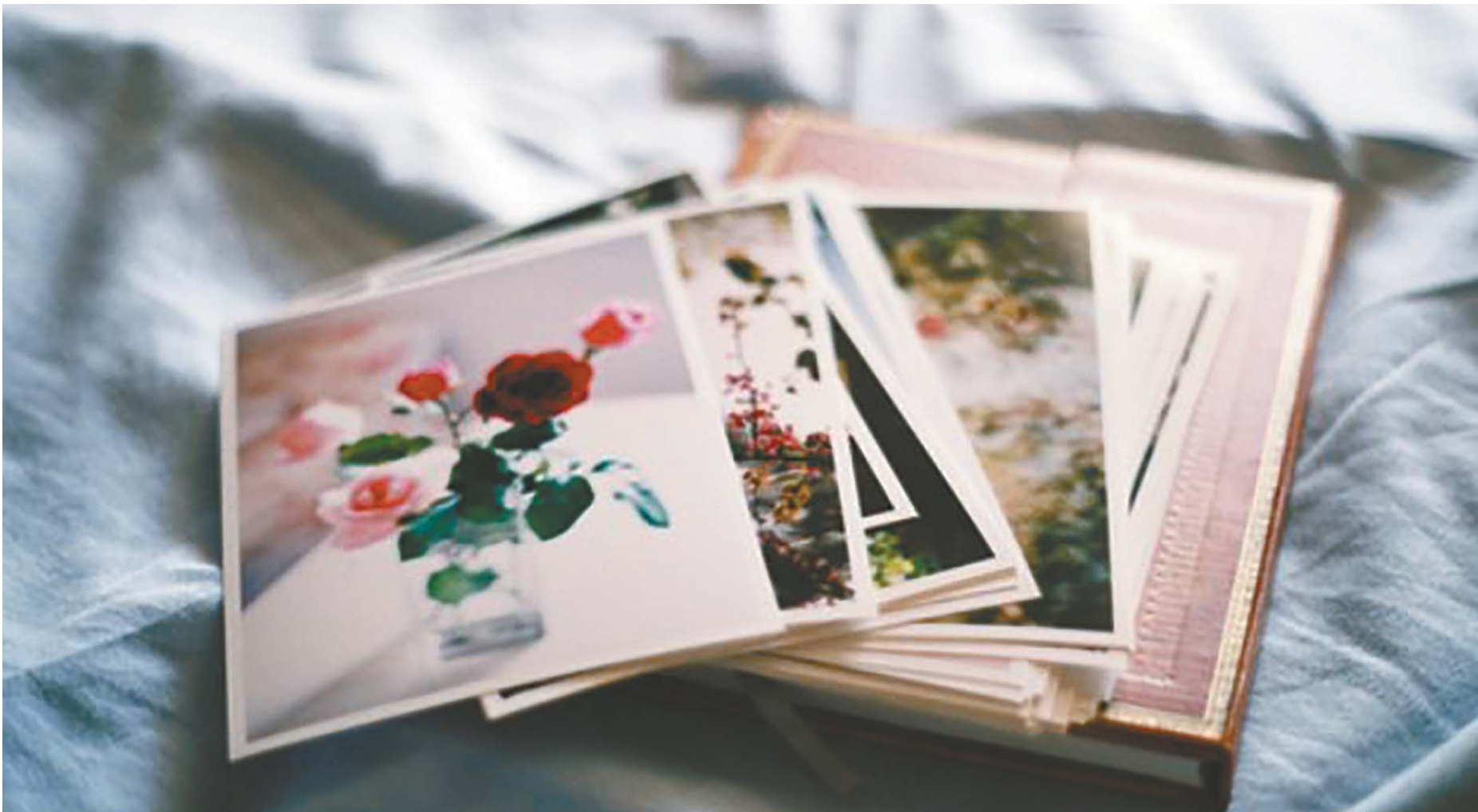
3월 6일 U-IT 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39개 팀에 146명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애초 선발된 학생 중 4명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전 클라우드 펀딩 및 모의 투자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각자의 아이템을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투자(실전/가상)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자율창업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 아이디어와 자율창업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발전된 점, 변화된 점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금을 목표로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했다.

꿈의 장학금에 도전하라는 슬로건은 학생들에게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누군가에게 창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일지도 모른다. 아직은 낯설고 열정만을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학생들 모두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창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문단은 기자
yoondasol73@gmail.com

봄맞이 사진 찍는 꿀 팁!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스프링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사각형의 틀로 시공간의 한 단면을 잘라내는 행위, 즉 틀 짜기를 말한다.

이 틀 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 프레임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이라도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나온다. 이번 사진 꿀 팁에서는 이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의 프레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의미 있는 피사체를 적절한 빛을 이용해 간결하게 프레임링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순간의 마음을 담는 일도 중요하다. 마음이 담겨야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좋은 사진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레임링을 할 때 일정한 시각적인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단순화시켜 시선을 이끌 수 있다.

#1. 유사성의 원리

간결한 프레임링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유사성이다. 우리의 시·지각은 유사한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 한다. 본능적으로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경우 대부분의 프레임 안에는 많은 대상이 있지만, 유사한 것들끼리 그룹화되어 간결하게 정리가 된다. 사진가라면 이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해 프레임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잘 찍는 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 연속성의 원리

유사한 사물이 연속해 있거나 늘어선 여도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되어 단순해진다. 연속성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떠올리기 위해 마트의 채소 진열대를 생각해 보자. 유사한 모양의 당근과 양배추가 연속해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시·지각은 단순하게 인지해 내용의 본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3. 폐쇄성의 원리

이는 풍굴효과라 하는데, 우리의 시·지각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밝은 곳으로 시선이 향한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폐쇄성의 원리이다. 빛으로 주요 피사체를 드러내고, 어둠과 그림자로 배경과 보조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감추어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자연스럽게 프레임링 하는 것이 중요하데,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아침, 저녁의 측면 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 잘 찍는 법 중의 하나이다.

#4. 솔더샷 프레임

솔더는 어깨를 말한다. 프레임 샷을 이해하기 위해 엄마 등에 얹힌 아기를 떠올

려보자. 아기의 시선을 따라가면 어깨 쪽으로 주요 피사체로 향해 있는 것이 떠오른다. 엄마 등에 얹힌 아기는 엄마의 머리와 어깨 때문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중앙으로 향하게 된다. 복잡한 길거리, 노천시장, 야외공연장, 버스나 전철에서 유용한 프레임 샷이다.

#5. 근접 샷 프레임

봄맞이 사진의 핵심은 봄을 담는 것이다. 근접 샷은 피사체를 가장 잘 보이게 찍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에 달린 꽃은 잘려진 꽃의 형태, 색깔, 종류 등 꽃 즉, 피사체의 특징을 사진에 담으면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6. 주변 물건 활용하기

사진을 좀 더 감각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물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땅에 떨어진 꽃도 예술 작품처럼 보일 수 있다. 꽃잎을 손가락에 끼면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손재주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사소한 물건을 이용하는 것은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7. 사진 구도로 찍기

사진의 생명은 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같은 장소의 같은 피사체를 사

전에 담는다고 하여도 구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돋보인다. 사진 구도는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전달하여, 배경과 피사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

#8. 순간 포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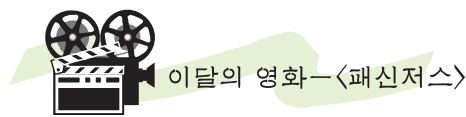
피사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피사체가 자연스럽게 걷는 순간을 사진에 담아보자. 사진만 봐도 연속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현실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9. 밝게 찍기

봄의 따스함, 봄 내음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밝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배경 혹은 피사체의 색깔을 살려 찍으면 보는 사람에게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조명이나 주변의 물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밝기 정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

출처 : 대학내일, 사진 잘 찍는 법.

운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우주선에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면...



- 영화 제목 : 패신저스
- 영화 감독 : 모튼 틸럼

이 영화는 굉장히 머나먼 미래의 배경이다. 바로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머나먼 미래이다. 우주선을 한 번 타게 되면 120년 후의 개척 행성으로 도착하게 된다. 사람은 동면 기구로 들어가서 개척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느 운석 충돌로 주인공인 동면 기구의 동면기가 깨어나게 된다. 처음 짐 프레스턴은 혼자 깨어나지 못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고 자각하는 순간 패닉을 일으킨다. 처음 짐 프레스턴은 혼자 깨어나지 못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고 자각하는 순간 패닉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실감 나게 하는 영화였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 한 명 없이 평생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롭고 괴로운 일인 것 같다. 또 앞서 말했듯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외로움으로 인해 짐 프레스턴이 오로라 레인을 깨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감동이 잘 보였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바로 프레스턴이 레인을 깨울 때 로켓과 1년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자신의 이상형을 본 주인공은 오로라 레인이라는 여자를 깨울지 말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서와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짐 프레스턴은 윤리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하다가 오로라 레인을 깨우기로 한다. 오로라 레인의 동면기를 고장 내고 억지로 레인을 깨울지 말지 고민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봐야 할 이유는 아직 현실에서 불가능한 우주과학기술이고 SF 영화이다. 한 번쯤 시간이 난다면 영화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우주복을 입고 프레스턴을 구하게 된다. 이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장치에서 동면할 수 있는 기능을 알게 되고 오로라 레인을 동면시켜주려고 한다. 그리고 90년 후 승무원들이 깨어나고 결국 그 둘은 죽는 순간까지 함께했다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패신저스는 현재와 달리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미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영화 장면 중 오로라 레인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있다. 내용은 급박하지만, 그 순간 우주선이 무중력 상태가 돼서 물이 공중으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장면이 나온다. 무중력 상태에서 물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건 동영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무중력 상태는 내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영상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실감 나게 하는 영화였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 한 명 없이 평생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롭고 괴로운 일인 것 같다. 또 앞서 말했듯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외로움으로 인해 짐 프레스턴이 오로라 레인을 깨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감동이 잘 보였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바로 프레스턴이 레인을 깨울 때 로켓과 1년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자신의 이상형을 본 주인공은 오로라 레인이라는 여자를 깨울지 말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물론 아서와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짐 프레스턴은 윤리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하다가 오로라 레인을 깨우기로 한다. 오로라 레인의 동면기를 고장 내고 억지로 레인을 깨울지 말지 고민하고 내적인 갈등을 겪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봐야 할 이유는 아직 현실에서 불가능한 우주과학기술이고 SF 영화이다. 한 번쯤 시간이 난다면 영화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책 속의 풍경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책 이름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책 저자 : 히가시노 게이고
- 출판사 : 현대문학

최근 영화계 붐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읽어보았다. 이 책은 전 세계 누적판권 1200만 부의 베스트셀러인데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간 소설 분야 판매 1위, 2017년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 등 많은 사람의 사랑 또한 받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그간의 추리소설에 비교하면 약간의 다른 느낌인 편안한 느낌의 책이다. 어쩌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팬이라면 이 책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추리의 느낌이 나면서도 형사도, 살인사건도 없는 이 책은 범죄자들의 내면에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풀이해보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여태 소설들 속에서도 잔인한 속에 인간의 선함을 그려왔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독자들로부터의 사랑의 이유였을 지도 모른다.

이 책은 짧은 범죄소설 세 명이 범죄를 탐라 갔다가 물건을 건지지 못한 채 도망쳐 나갔고, 설상가상으로 차까지 고장나는 바람에 인적이 드문 폐업한 가게에 잠시 피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은 다음 날까지만 있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폭자가 온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편지를 가져왔고, 결국 편지를 보게 된다.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부터 온 고인 상담 편지였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곳에 편지가 온다니, 그들은 결국 그 편지에 답장하게 된다. 놀랍게도 답장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답장이 온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 대신 자신을 길러준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술집에서 일하는 시즈코, 빗속 아이와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는 미호모, 그리고 생선가게 뮤지션 등 각각 단편처럼 따로 존재하던 상담 사연과 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이 책의 재미 중 하나일 것이다. 범죄소설이 아닌 인적이 드문 이곳에 잠시 피신하려 했지만, 갑자기 받은 편지에 답장을 쓰게 되고 그들은 어쩌다 보니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말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들이 고민 상담사 역할을 한 것이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에 히가시노 게이고는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은 대개 분별력 있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러 미숙하고 결점투성이인 젊은이들로 했습니다.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우선년부터 무척 궁금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나비효과를 주는 이 책은 세월을 건너 뛰어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 서로 얽히는 것인지 생각하게끔 한다.

어쩌면 운명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저마다 살아가는 시대와 처한 환경이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네 개의 에피소드는 삶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옮긴 이는 이 책에서 '어린 시절에 우연히 훗날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매진했다. 부모·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빼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로지 그 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무심한 세월만 흘러갈 뿐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고 초조한 마음에 쌓여간다. 나는 과연 재능이 있는 것일까. 스스로의 재능에 대해 모라모라 괴어오르는 의심은 인간에게서 모든 의욕을 빼앗아간다. 그런 때에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믿어주세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라는 답

장이 날아온다. 주위의 능력자들은 회색 앞서가는데 나 혼자만 한참 뒤처진 채 아둔한 노력으로 때우고 있는 것 같아 문득 덧없고 슬퍼질 때는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볼 생각이다. 생선 가게 뮤지션 남,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20대는 그저 듣고 따라 하거나 하던 고등학교, 중학교 때와는 다른 주체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낄 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간절히 묻고 싶고 차라리 그냥 명쾌하게 답을 내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만 달라고, 이 간절함을 알아만 달라고 속으로 수 번 번이고 수만 번이고 외친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책을 떠올려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답을 알고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답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매체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무관심 속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또 '생선 가게 뮤지션 남'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현실이 그것을 부정할 때 나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 주고 싶다.

김다경 수습기자
nojik4@gmail.com

축제·공연·소식



제주 유채꽃 축제

- 기간 : 2018. 04. 07. (토) ~ 2018. 04. 15 (일)
- 장소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41 (조랑말체험공원)
- 주최 : 서귀포



에버랜드 튤립 축제

- 기간 : 2018. 03. 16. (금) ~ 2018. 04. 29 (일)
- 장소 : 에버랜드
- 주최 : 에버랜드



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

- 기간 : 2018. 03. 31 (토) ~ 2018. 04. 08 (일)
- 장소 :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 주최 : 의성군(사곡면), 산수유마을 추진 위원회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

- 기간 : 2018. 04. 06. (금) ~ 2018. 04. 08 (일)
- 장소 : 경기 이천시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대
- 주최 :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 추진 위원회

올해의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 시리즈 ‘봄’ 편 봄은 왜 분홍이어야만 하나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 해의 컬러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컬러선정은 매년 팬톤 색상 연구소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분석한 뒤 올해의 컬러를 발표한다. 올해 2018년의 컬러는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이 선정 되었다. 광대한 은하계와 닮은 푸른빛 바탕의 보라색이다. 우주와 미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움을 내포한 색이기도하다.

봄의 컬러라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분홍색을 떠올린다. 봄은 왜 분홍이어야 할까? 그 이유는 여태 한가지면 충분했다. 분홍 빛꽃이 만개한 길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매년 분홍빛 배경에 취해 그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게 된다. 하지만 팬톤에서 울트라 바이올렛을 2018 올해의 컬러로 선정함으로써 모든 분야가 판이 뒤집혔다. 가장 빠르고 쉽게 반응을 보인 업계는 단연 패션과 뷰티 사업이다. 실제로 보라색은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패션과 뷰티 사업에서는 물론 인테리어나 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컬러이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바이올렛 컬러는 포인트 컬러에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4월의 완전한 봄, 당연히 분홍색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패션과 뷰티 곧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울트라 바이올렛이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의 봄과 울트라 바이올렛은 어떤 새로운 모습일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골파부

BEAUTY

봄 메이크업은 당연히 분홍빛이 만연했다. 봄만 되면 SNS엔 벚꽃메이크업이 항상 업데이트 되고 로드샵은 그에 맞는 분홍빛 화장품만 내놓았다. 이제는 2018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 트렌드에 맞추어 갖가지 컬러를 선보인다. 보라색이라 하면 어두운 느낌이 강하다. 그러므로 자칫 눈두덩이 위에 바르면 멍들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예쁜 보라색의 시대이다.

보라색이라 하여 어둡지 않은 옅고 신비롭고 은은한 색상이 메이크업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체적으로 립스틱과 섀도가 포인트 메이크업 색상을 바꾸기 가장 쉬운데, 그 전에 자연스럽게 도자기 같은 피부를 바탕으로 입술, 눈, 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포인트 화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이스 화장이 너무 뜨지 않고 깔끔해야 한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섀도와 립뿐만 아니라 볼터치와 마스크라까지 보라계열로 출시되고 있다. 은은한 보라빛 이기에 강해보이지 않겠지만 만약 그림에도 색조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의 패키지도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로 출시되었다. 아이섀도우는 라벤더나 자스민과 같은 보라색 과일 성분을 발효해 넣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이다. 특히나 보라색 패키지에 피부에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올해의 컬러를 만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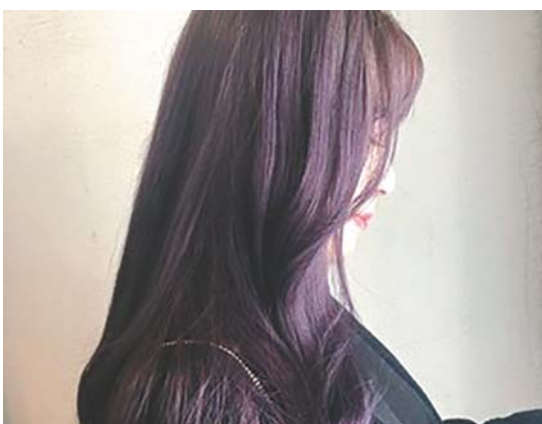


사진출처>아시아경제 올해의컬러 기사

FASHION

1년 전 봄만 해도 길거리에는 분홍빛 원피스로 가득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보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연보라부터 진한 보라컬러의 옷을 많이 볼 수 있다. 봄에 보라색이라 해서 이상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다.

잘못하면 난감한 컬러가 되어버리는 보라빛이지만 강렬한 보라빛의 촌티와 울트라 바이올렛의 세련미는 백지 한 장 차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만 옷 입는 센스가 있다면 확실히 세련돼질 수 있다. 메이크업과 같이 패션에도 강렬한 보라빛은 이전엔 잘 입지 않거나 포인트로만 장식했던 컬러이다. 울트라 바이올렛 자체도 일반 우리가 인식하는 보라색보다 톤이 꽤 낮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좀 더 낮은 채도의 온화한 미스티라일라 컬러로 나타난다. 요즘 쇼핑몰에도 괜한 보라보다 미스티라일라 컬러를 활용한 옷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은은한 분홍과 섞어 봄과 더욱 잘 어울리는 볼륨이 많이 나오고 있다. 카디건과 자켓 그리고 운동화까지 옷 입는 센스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코디할 수 있다. 혹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채도를 낮게 그라데이션 코디로 미세하게 보라색이 주는 부담을 세련미로 바꿔나가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후드티셔츠, 셔츠 등 많은 룩에서 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살롱루즈뷰티룸

HAIR

봄이 됐을 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표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염색이다. 봄에는 당연히 밝은 갈색이지 라며 주변에서 바람을 넣는다. 그러다 계속 마음이 흔들리며 ‘염색할까?’ 하지만 무슨 색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계절이 바뀌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밝은 컬러가 봄에 어울린다는 것을 알지만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 사람은 그저 고민일 뿐이다. 1년 전 애시 컬러가 유행하면서 애시핑크, 애시그린 등 많은 컬러를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뷰티 패션뿐만 아니라 염색에서도 보라색염색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더 이상 보라색이란 사람들로부터 부담인 컬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라색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장발머리의 보라색 염색스타일은 탈색 후 애시바이올렛 염색으로 보라빛의 정도를 머리끝까지의 위쪽부터 그라데이션 스타일로 완성할 수 있다. 풀 염색보다 부담이 덜하고 더욱 특별한 느낌으로 연출해 낼 수 있다. 단발머리에도 울트라 바이올렛은 애시바이올렛 색으로 상큼하게 연출할 수 있다. 더욱이 심심한 단발에는 맛있는 이미지에 헤어컬러는 변화를 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염색이 여전히 부담이라면 반다나 등 헤어 악세사리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봄에 벚꽃이 만개할 때 그 보라빛 향기를 함께 누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권 아닐까.



사진출처>차밍밍의 레인보우 스토리

NAIL

이전과 별 다를 것 없이 보라색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네일이 아닐까 싶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울트라바이올렛이 올해 2018년의 색상으로 선정되어 조금 더 특별함이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많은 보라색 계열의 네일 컬러가 나오고 그에 어울리는 더 많은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괜히 나도 한번 발라 보고싶은 색 울트라 바이올렛. 어떻게 바르면 더 세련된 네일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가볍게 표현하고 싶으면 파스텔 톤 바이올렛 컬러와 글리터 바이올렛을 함께 매치하면 된다. 거기에 스톤을 더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반짝이는 바이올렛 컬러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혹시 강한 바이올렛 컬러가 부담이라면 부분 프렌치를 활용해도 좋다. 풀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군데군데 프렌치로 바이올렛의 세련미는 살리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아래로 갈수록 컬러를 진하게 낸 그라데이션 연출법을 사용해도 된다. 채도가 낮아질수록 분홍색과 보라색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더 봄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레도 올해의 컬러를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면 풀 컬러로 연출해도 된다. 괜한 바이올렛 컬러도, 은은한 바이올렛 컬러도 손의 색상과 어울리게만 쓴다면 훨씬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더욱 예쁜 컬러를 돋보이고 싶다면 네일 전 큐티를 제거는 필수인 것을 명심하자.

●죽비소리

3월이 되면서 캠퍼스는 지금 한창 들떠 있는 분위기다. 바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내기 친구들이 들어오고 복학을 하거나 편입을 한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리며, 스튜던트 플라자에서서는 동아리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식당은 북적거리기 일쑤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덩달아 나도 기분이 붕 뜬다. 하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매년 나는 새학기에 대한 설렘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컸었다. 수강신청과 정점에 대한 걱정, 학점과 시험에 대한 걱정, 기숙사 걱정 등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갖 걱정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발판이자 출발선이 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의 최대 걱정은 학점이다. 나는 경기도 북부에 살다가 부산으로 혼자 내려왔기 때문에 꼭 기숙사를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점수의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저번 학기에는 4점대의 학점을 넘지 못하여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4점대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쉬운 일 일수도 있었지만

개강과 걱정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 과 특성상 암기식 수업보다는 직접 활동을 하거나 광고를 만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진짜로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수업을 위주로 들어야 학점을 효율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나는 나의 장점이 발표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이 조별 과제와 토론, 발표가 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다. 내 장점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강신청 당일 접속자가 초과하면서 서버가 열리지 않아 몇 개의 수업은 제때 신청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원하는 수업에 들어갔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나도 수강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락거리며 원하는 수업을 잡았다. 물론, 이번 다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학기도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힘들게 수강신청 한 수업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개강이란, 설렘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이번엔 학점을 잘 받아서 기숙사에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걱정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며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번 학기에는 저번 학기 보다 더 열심히 학교생활에 충실해서 고독점의 학점과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내년의 내가 지금의 나를 회상할 때 뜻깊었다고 생각할 만큼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소중한 추억도 쌓으며 나를 한층 더 개발할 것이다. 가끔은 힘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분명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봄날에 필 벅쳐터릴 활짝 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저는 이번에 동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는 3주 정도 밖에 안됐지만, 처음으로 대학을 다니는 소감과 신입생이라면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엄청난 경사에 놀랐습니다. 타지에서 왔던 터라 부산의 경사를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하루하루가 등산길인가 헛갈리기도 했고 학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 저에게 너무나도 멀리 느껴졌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 수업을 들으러 가면 공복이었나 심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소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높은 경사를 공명하며 올라가고 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경치를 보게 됨으로써 동서대학교의 매력 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대학 가서 마음 맞는 진짜 친구를 사귀면 힘들어'라며 얘기를

나의 첫 대학생생활

하곤 했고, 서로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 가는데 그 와중에 진실 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손에 꼽힐 것이라고 들어왔었습니다.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저에게는 그 말들이 다 경험을 통해 나온 말들이라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려 노력했습니다. 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말 한번 걸어보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한번 해보니 두 번이 되고 나중엔 자연스레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다양한 성격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부분이 착했고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기 초라 다들 어색해서 낯을 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 서도 마음 맞고 오래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조별 과제도 하게 되었는데 SNS에서 흔히 말하던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는 다르게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 오히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 조별 과제는 재미도 있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일학년 때가 과제도 많이 없고 시간이 널찍하다고 얘기 해주었는데 제가 해야 할 과제들이 벌써 1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약간 뻘뻘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 보니 저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어오다가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낀 것과는 많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 생활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동서대 신입생분들 같이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명언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이다.

—브레튼

경험은 현명한 사슴의

유일한 예언이다.

—라마르티스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지식은 매우 천박할 뿐이다.

—클라렌스 데이

사 설

2018년,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졌다. 수세기 화장실이 일변화되기 시작한 지 40년 만에 일어난 변화이다. 즉,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에 버려야 하고 비치된 위생용품 수거함에는 위생용품만 버릴 수 있다.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단어가 생긴 이유는 이렇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이용하는 데에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불쾌함의 원인은 휴지통, 욕에 치저럼 미관이나 위생상 좋지 않을 뿐더러 악취나 해충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시행령이 개정돼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도 편리해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반응과 결과는 걱정스럽기도 하다. 휴지통이 없는 만큼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이 투입될 경우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 화장실 문화를 영위해 온 것처럼 새로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의 역할이 한층 필요하게 됐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두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부분의 시민은 전보다 악취 등 위생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는 반응이고, 지자체와 민간청소용역 업체 등은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민간청소용역 업체의 불만의 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휴지통이 있어도 변기가 자주 막히는데 휴지통을 없애면 화장실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휴지로 인해 변기가 막힐 확률은 아주 낮다. 화장실 용 화장지를 출시하기 전에는 국가기술 표준원의 물 풀림 성 기준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어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래한 쓰레기는 칸막이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최근의 추세에 맞춰 물에 잘 녹는 공중화장실용 화장지를 내놓는 화장지 전문 회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변기 막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수년간 휴지는 휴지통에 버린다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행령작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 시행작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비록 양극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바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원한다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만큼 그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공중 화장실은 이용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만큼 한쪽의 역할만을 강조할 수 없다.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더 나아가 청결하고 상쾌한 공공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뿐 아니라 이용자 또한 깨끗하게 이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이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휴지통을 없앴다고 해서 청결한 화장실 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물티슈, 담배꽂초 등이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변기 막힘과 악취를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화장실 청소 노동자들에게 가중되는 업무부담을 덜어낼 건전한 시민의식과 매너도 요구된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의 확산은 이용자의 공중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휴지통이 없

는 화장실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동서대학교이다. 동서대의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만 마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위생용품을 위한 수거함에 휴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 화장실 문화의 개선도 앞다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화장실 역사가 인류 문명 발달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듯이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이용 환경은 곧 도시의 수준을 규정하게 된다. 그 예로 우리 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호텔, 유흥센터, 공공기관 등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화장실 휴지통이 감소했다. 또한, 비데와 핸드 드라이기 등이 설비되어 있는 화장실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첨단화된 화장실 체제를 보여줬다.

그런데도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화장실 휴지통을 보며 경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이리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휴지통으로 인한 악취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좋은 것은 함께하며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러 선진국의 화장실에도 휴지통은 없었다. 쾌적하고 청결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선진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문화도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화장실 개혁은 훨씬 어떠한 문화보다도 빨리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의 공중화장실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포스터가 필요하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아직도 ‘변기통 안에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화장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선진 화장실 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173@gmail.com

방개의 대학일기

벚꽃 필 즈음에



다들 중간고사 화이팅!

방개는 물방개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물방개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 동서인도 어느 곳에서도 인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방개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가주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만남이란 사전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서로 마주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은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같이 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급년 입학식에서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께서 축사를 하면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남는지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수들을 만나고, 특히 동서대학 건학 이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면하시었다. 그런데 만남에는 3가지 종류가 있

만남

다고 한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란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란 만남수록 생선 냄새처럼 뒤끝이 좋지 않은 만남이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나쁜 관계로 힘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이다. 처음 만날 때만 향기 나고 기분 좋은 만남이지만 곧 시드는 풀과 같이 별로인 만남이다. 꽃과 같은 만남은 쫓사랑처럼 곧 잊어버리게 된다.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주듯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노고에 위로가 되는 만남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짧은 대학 생활에서 아무나 만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때때로 사랑을 가려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경 구약 장언에는 다름과 같은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3:20)

공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 無友不如己者 / 무불여거자

여기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임에 틀림이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중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 하는 부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를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동서인들은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간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인문학적 교양과 인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와 인성,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을 위한 영성을 바로 세우야 인성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랑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영생에 잇대어지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육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영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영성으로 인성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는 능력(성령)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사랑과 만남이 풀리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글로벌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서만평

글·그림 최인아



■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연구원 차민경

■ 학생 인터뷰-호텔경영학 전공 김민준 졸업생

진로와 취업설계가 막막하다면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로!



▶차민경 연구원.



동서대학교 내부에는 진로와 취업설계를 막막히 생각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

동서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이라면 이곳의 이름을 이제부터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물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도 포함하여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를 알고 있으면 더 좋다.

동서대학교 학생들 중 진로와 상담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 이 센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동서대학교 신문사에서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려 한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차민경입니다. 저는 분고 졸업생입니다. 센터를 맡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센터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는 여대생의 진로상담과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대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센터 이름 앞에 여대생을 붙이게 된 설립 목적이나 이유가 있나요?

A.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는 여대생의 진로개발 및 직업설계, 취업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전문기관입니다. 동서대학교는 2003년 <국제 여성 커리어

개발 센터> 설립하여 2006년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2007년부터 사업 참여, 2010년 <여성부>·<교육과학기술부>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Q. 하시는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A. 저희 센터는 주로 여대생의 진로상담, 취업설계 및 셀프리더십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프로그램으로는 여대생의 개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1:1로 함께 나눈 '동서 W 커리어코칭', 희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구체적인 취업설계를 하는 'DSU SMART Women 여대생 취업동아리', 전공별 선후배 진로 멘토링을 통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Peer Career Design'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 학생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프렌치테이션 능력 향상 교육', 자격증 과정인 '여성 생애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과 '서비스 컨설턴트 양성과정', '여대생 취업 역량 강화 캠프' 및 '셀프리더십 강화 캠프'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Q.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취업동아리에서는 여대생 특성에 따라 경력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꿈꾸는 진로희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합니다. 비슷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여대생들 4~6명 정도가 모여 자발적인 취업스터디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직업 마인드 강화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강사님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날과 직종별 실무자들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동서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들에게 긍정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자신을 알고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동서인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조금씩 더 책임감과 강한 마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의 배우며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날개를 달고 싶거나 혹은 어디로 발을 딛어야 할지 망설여지는 여학생들은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조차도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까이에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려워서 이곳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방문할 용기가 없었고,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 갈 수 없었다. 이제라도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에 대해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로 혹은 취업설계에 고민이 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곳을 꼭 찾게 것이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호텔경영학 전공 김민준 졸업생.



객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관광객이 더 나은 여건 아래 관광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를 공급하는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요.

Q.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A. 저는 호텔에서 액티비티 팀이라는 곳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일반적으로 호텔리어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다른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었지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액티비티 전담팀은 호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부서의 숨은 명소들을 발굴해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였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부산에는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고 관광인으로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숨은 명소들을 발굴하고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Q. 한국관광공사 입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신 일들이 있나요?

A.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NCS 기반의 입사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시험 준비에 가장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다 보니 틀려오는 줄음과 싸움을 해야 했어요. 언제나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으면 어김없이 피로가 몰려왔는데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최대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했어요. 단순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어야 했지요.

Q. 관광학부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A.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아마도 언어일 것 같아요. 관광 분야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언어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언어능력에 대한 것은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전공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틈틈이 관련 실습이나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쌓아둔 경험이 결국은 실력이 된다고 믿어요.

Q. 전공을 떠나 동서대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렵기도 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무의식 속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의식적으로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서대 후배님들의 건승을 빌니다!

지은서 수습기자
eunseo983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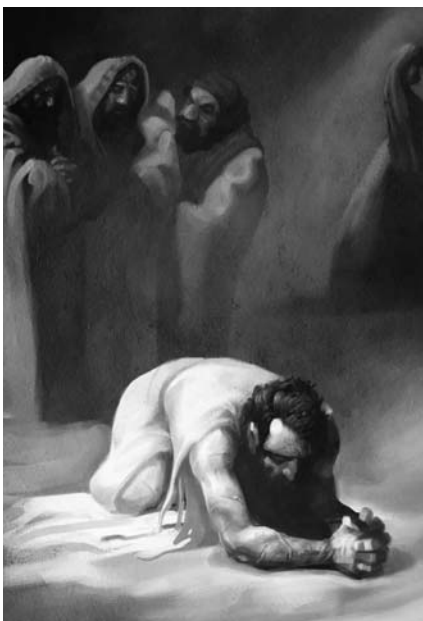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욥



▶사탄의 욥을 향한 재앙.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소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어느 날, 사탄이 하느님에게 내기를 걸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상에 '욥'이라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면 하느



▶욥

님을 욕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내기하게 되었다. 우선 사탄이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게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라고

부추기고, 하느님은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네 손에 부친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하며 허락하고,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준다.

우선 사고와 전염병으로 욥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다. 그 다음에는 도적떼가 몰려들게 하여 낙타를 죽이고 짐이 무너지게 하여 욥의 자식들까지 토틈시켰다. 이렇듯도 욥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산과 자식들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 이를 거두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겼다. 사탄이 다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은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없다. 그는 여전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 헛일이었다."라고 하자 사탄은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게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역시 하느님은 "좋다, 이제 내가 그

를 네 손에 부친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한다. 이에 사탄은 마지막으로 욥을 피부병에 걸리게 했다.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고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불쌍한 신세가 된 욥을 향해, 욥의 아내는 "당신은 아직도 충절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라고 악담한다. (욥기 2:9)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말하길 "당신은 부분별한 여자처럼 말하는 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2:10) 병에 걸려 드러누운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말없이 있어주었다. 욥이 왜 자기가 고난을 겪는지 이해를 못 하고 절규하자,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으니 인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욥은 '내 잘못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할 정도로 크지 않은데 내가 이토록 혹독한 재앙을 당함은 억울하다'고 소리 높여 주장한다. 그들의 대화가 끝난 즈음 신이 폭풍우 가운데서 출현한다. 신은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

해 답하지 않는다. 그저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 것인지 말할 따름이다. 욥은 경이하는 조물주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의문의 답을 얻지 못한다. 끝부분에서 신은 욥이 잃은 것들을 모두 되돌려주면서, 세 친구들을 향해 대화가 너무 깊어 들어갔다면 꾸짖는다. 결국 욥의 병을 고쳐주었고, 자녀 열 명과 더 태어나게 하였고, 소와 양과 낙타가 그전의 두 배가 되게 하였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는 슬픈 재난을 겪으면서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불굴의 끈기를 보면 욥은 인내의 화신이라 할 만하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11)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JW.ORG, 위키 피디아

김다경 수습기자
nojk4@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8 제3회 농산물 아이디어 경연대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 공모기간 : 2018. 02. 26 ~ 2018. 04. 13.
- 공모주제 : '보너'를 대표하는 로고(CI) 디자인 - 보너 뜻: 보너란 겉 겹질속에 들어있는 속 겹질을 이르는 말



- 제2회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논문/리포트,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기간 : 2018. 03. 19 ~ 2018. 06. 29
- 공모주제 : 소비자 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OK저축은행 고객패널 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기간 : 2018. 03. 20 ~ 2018. 04. 16
- 공모주제 : 테마별 온/오프라인 서비스 체험, 활동결과 작성 및 고객관점 아이디어 제안, 발대식 및 간담회 참석



- 제4회 경기 VR·AR 창조 오디션
- 공모분야 : 웹/모바일/플래시, 게임/소프트웨어
- 공모기간 : 2018. 03. 13 ~ 2018. 04. 20
- 공모주제 : VR/AR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예산 지원과 맞춤형 육성체계 구축



- HDC 아이콘트롤스 조명 디자인·공모전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 공모기간 : 2018. 03. 19 ~ 2018. 06. 28
- 공모주제 : Re-Light (부제: 커넥티드 시대, 빛의 재발견)



- 2018 상상시험 시장 콘텐츠·공모전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디자인/캐릭터/웹툰
- 공모기간 : 2018. 03. 20 ~ 2018. 04. 30
- 공모주제 : 상상시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제



- 제2회 부산마약퇴치 콘텐츠·공모전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디자인/캐릭터/웹툰
- 공모기간 : 2018. 03. 20 ~ 2018. 05. 31
- 공모주제 : 마약류 사용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및 아이디어 기획



- 제4회 마피아42 게임 캐릭터 스킨 일러스트/자유 팬아트·공모전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공모기간 : 2018. 03. 13 ~ 2018. 04. 13
- 공모주제 : 마피아42 게임 캐릭터 스킨 일러스트/자유 팬아트



- 글로벌 블로거, 사이판블레이 서포터즈 1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기간 : 2018. 03. 15 ~ 2018. 04. 18
- 공모주제 : 블로거, 사이판블레이와 함께 할 sns/블로그 서포터즈 1기 모집



- 2018 미래한국 아이디어·공모전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공모기간 : 2018. 03. 19 ~ 2018. 04. 20
- 공모주제 : 국민이 바라는 10, 20년 뒤 미래한국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전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공모기간 : 2018. 03. 15 ~ 2018. 04. 23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도시재생뉴딜 UCC·공모전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공모기간 : 2018. 03. 19 ~ 2018. 05. 14
- 공모주제 : 홈페이지 참조

동서대학교 냉정 CAMPUS MAP

2018학번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지도!

